

“유족이 지켜보고 있다” 33차례 선원들 재판 참관 안산~광주 7만km 왕복



세월호 1년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① 재판정의 세호 아버지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차디찬 물 속에 있다가 발견된 자식 생각에, 눈 뻘히 뜨고 가족과 동료들 떠나보낸 죄스러움으로 하루를 버티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는데, 훌쩍 1년이 지났다.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이 묻는 듯하다. 울음과 신음만 가득했던 진도 팽목항을 ‘잊지 않겠다’던 약속, ‘기억하겠다’던 국민적 다짐은 잘 지켜지고 있는 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그 현장에 있던, 쉽게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1년 행적을 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한 시리즈를 연재한다. <관련기사 2·6면>

2000GB, A4 용지 800쪽, 120일간 7만3000km, 소주 5병, 담배 4갑.

지난 1년간 제삼열(52)씨의 행적을 요약할 수 있는 5가지다.

제씨는 단원고 2학년 8반 세호군의 아버지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열릴 때면 새벽 5시 광주행 버스를 탔다. 안산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30분(305km), 하루도 빠지지 않고 33차례 열렸던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참석했다. 선원 뿐 아니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 및 해경 123정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까지 무려 120일간 눈을 부릅뜨고 법정을 지켰다.

지난 10일 실종자 가족·유가족 8명과 함께 안산에서 버스로 진도에 내려올 때도 제씨 가방에는 14일 광주고법에서 열리는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등 재판날까지 필요한 일주일치 생필품으로 가득했다.

무엇이 그를 법원으로 향하게 했을까. 그는 ‘광주로 향하던 버스가 폭설 때문에 가지 못하고 돌아선 날’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는 “법정에 단 한 명의 희생자 가족이 없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상처를



단원고생 아들 잃은 제삼열씨
선원 재판 눈 부릅뜨고 지켜
재판 주요 발언 꼼꼼히 기록

받았다”면서 “그 이후 결코 재판에 빠지지 않고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버스를 혼자 타기 미안해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온 뒤 시내버스로 법원을 찾을 때도 있었다”고 했다.

이 때문인지 제씨는 광주시민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일요일에 5차례 재판이 진행될 때 속식을 도와준 광주시민상주모임 회원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표했다. “광주에서 오셨다면 당연히 만나야죠”라며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선원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모은 자료가 2테라바이트에 달한다. 800쪽에 이르는 문서도 그의 집에 빼곡히 쌓였다. 재판 증거로 제출할 것도 아니다. 그는 그 래도 “호(아들)와의 약속”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연년생인 세호 동생을 포함해 남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 한번이라도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실을 찾아낼 것 같아서”라고 했다.

자료를 하나씩 얻을 때마다 아들 생각에 울음이 쏟아졌고 말을 이어갈 때마다 신음을 삼켜야 했다. 담배와 술은 그 때마다 찾았던 보조제나 다름없었다.

<2면으로 계속>

/진도 팽목항=백희준기자 bhj@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성완중 리스트’ 대선자금으로 비화

野 “대선자금 실제 밝혀라”...與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朴대통령 정면돌파 의지

자원외교 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실세들에 거액을 건넸다는 이른바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당장,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4일 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성완중 리스트’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 전 회장의 ‘폭로’는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3주도 채 남지 않은 4·29 보궐선거 판세에 지각 변동 일으킬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을 걸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

보고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에서 앞장서 책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 지난 대선 자금의 실체를 밝히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사건 성격을 ‘불법 정치자금’에서 ‘불법 대선자금’으로 확대하며 여권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 중원구 정환서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해 “불법 대선자금의 일단이 드러났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세 명을 포함한 대통령 주변 권력들의 집단적인 거액 뇌물 비리가 폭로된 사상 초유의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

어 “리스트의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직책들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은 12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광주 출신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성완중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팀 구성을 결정하며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성완중 리스트에 거명된 정치인 대부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중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의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성완중 리스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10일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이틀 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혹스런 검찰 김진태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두 손을 흔들며 대답을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U대회, 판문점 성화봉송·북한응원단 참가 성사 기대감

北대표단, 사전회의 적극활동

한국 선수단장에 유병진 총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7월 3~14일)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가한 북한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판문점 성화봉송과 북한응원단 참가 등 대형이벤트의 성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8·20면>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삼부지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60개국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U대회 대표단장(HoD·Head of Delegation) 사전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0일 오후 호남선 KTX를 타고 광주에 온 김정남 북한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4명이 참석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시작 10여분 전에 도착해 밝은표정으로 각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휴대전화와 개인 카메라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이날 사전회의의 후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에 지려고 하는 팀은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 대표단은 지난 11일 비공식 일정으로



12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개막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서 장정남 북한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맨 왼쪽)을 비롯한 북한대표단이 말레이시아 등 각국 대표단과 환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핸드볼 결승전이 열리는 나주 다목적체육관을 둘러보는 등 경승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장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장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건설 중이던데...”라며 말을 아끼는가 하면, 판문점 성화봉송 계획에 대해선 “허허허”라는 웃음으로

답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13일 오전 8시30분부터는 광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단체종목 조추첨이 열린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광주U대회 한국 선수단장에 유병진 명지대 총장을 선임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 성경이 읽히지!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역 과정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신봉동, 힐스테이트

1,544세대 대단지 프리미엄의 획을 긋다!

조합원 모집완료!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74m²

162세대

84m²

1,382세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봉동 산26번지일원

모델하우스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73번지

시공예정사 **현대건설** 자금관리 **A** 아시아신락 조합업무추진사 **에스비개발산업** 문의 062) 575-4000